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생애목표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20대 청년들의 삶의 지향<sup>1)</sup>

박경호·박근영·송승원 | 교육조사·지표연구실

#### 요약

- **현안** 20대는 취업, 결혼, 출산 등과 같이 10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과업에 직면함. 특히 우리나라 20대는 대학 재학기간 증가, 주거비 상승,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은 물론 결혼, 출산 시기도 함께 늦어지고 있음.
- **문제 진단**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불안이 증대되고 근로의욕이 하락하여 가상화폐 투자와 부동산 영끌 현상이 20대까지 확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까지 면대면 모임을 전제로 진행되던 여러 활동을 제한하여 청년들의 대외활동이 그 어떤 시기보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정책 제언** 생애목표의식을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의 삶의 지향과 그 지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애목표 관련 사회 초년생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을 제언함.

1) 본 브리프는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로 수행된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박경호 외, 2021)의 2장 초기 성인기 생활과 성과 기초분석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 1. 들어가는 말

- 20대는 취업, 결혼, 출산 등과 같이 10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과업에 직면함. 특히 우리나라 20대는 대학 재학기간 증가, 주거비 상승,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은 물론 결혼, 출산 시기도 함께 늦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불안이 증대되고 근로의욕이 하락하여 가상화폐 투자와 부동산 영끌 현상이 20대까지 확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까지 면대면 모임을 전제로 진행되던 여러 활동을 제한하여 청년들의 대외활동이 그 어떤 시기보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애목표의식을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의 삶의 지향과 그 지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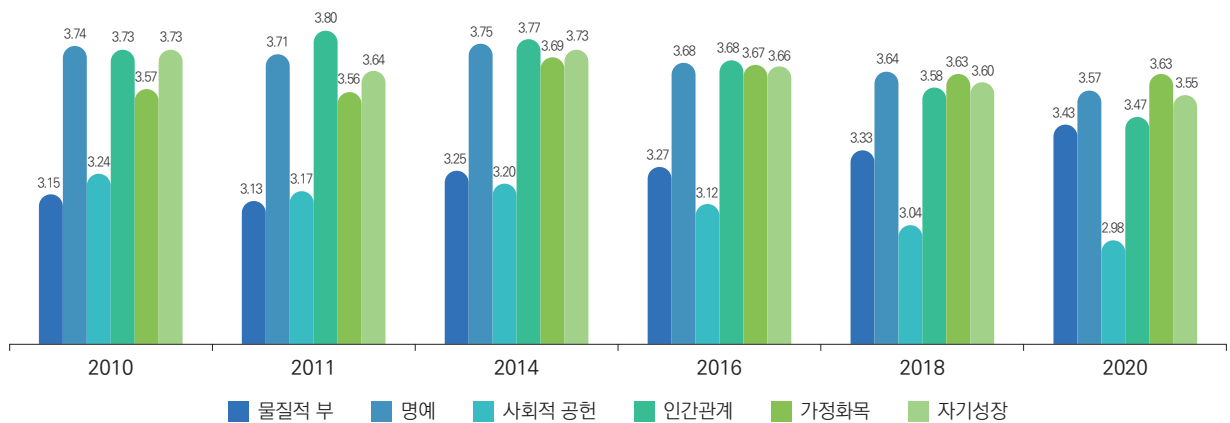
**분석 자료**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코호트\* 7~12차(2011~2020년 20세~30세 시기) 데이터

- 분석 방법**
- 성별 및 조사 유형에 따른 생애목표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t-test, ANOVA,  $\chi^2$ ) 실시
  - 조사결과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연도별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적용

\* 2005코호트는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30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서, 학생들의 인지적·정적 성취와 발달, 상위 학교급 진학과 학교생활, 진로 및 초기 직업 획득 과정 등을 조사함.

## 2. 20대 청년들의 생애목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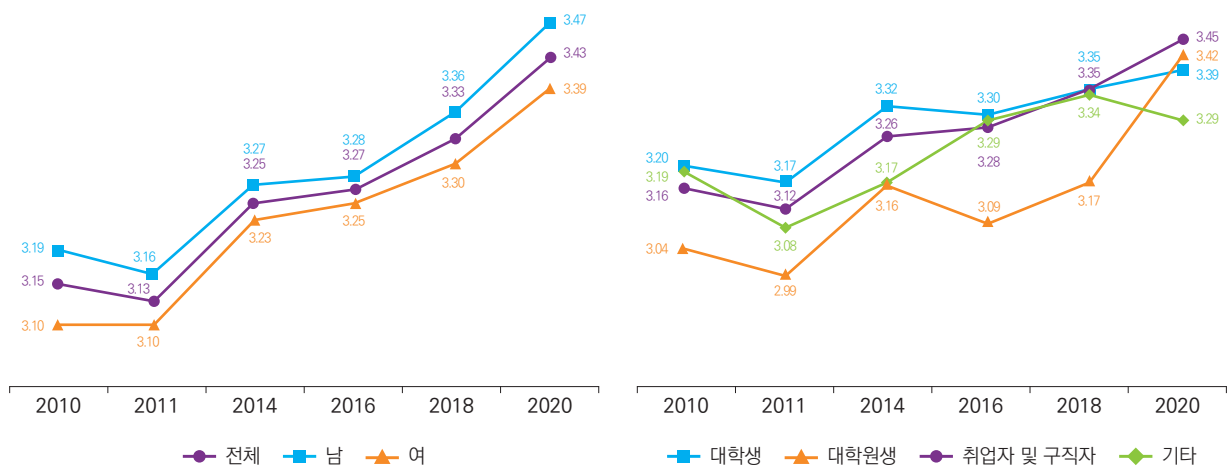
- 생애목표의식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목표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0년 2005코호트 7차 조사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처음 문항을 개발하였으나, 2014년 동일 코호트의 9차 조사를 위해 축약형 문항을 추가 개발한 바 있음. 축약형 문항은 물질적 부, 명예,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 가정화목, 자기성장의 6가지 영역으로 세분됨.
- 각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단계 척도로 측정되었고,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서 꾸준히 평균값이 상승한 '물질적 부', 그리고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온 '가정화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평균값이 하락하는 추세임.



[그림 1] 생애목표의식(5점 척도)

#### ■ 물질적 부

- 물질적 부를 중요한 목표로 보는 경향은 2011년 조사에서 소폭 하락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음. 2020년 조사의 평균치는 3.43점으로 2018년 조사에 비해 0.1점 증가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조사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취업자 및 구직자의 평균값이 대학생, 대학생 유형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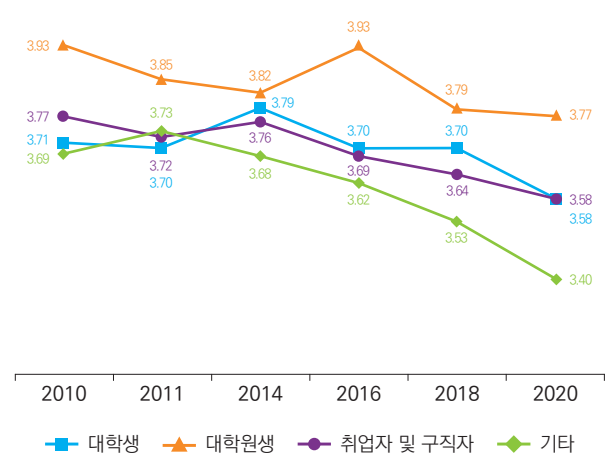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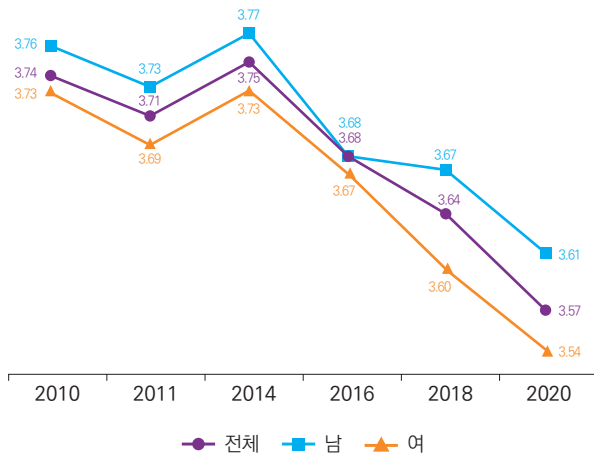


물질적 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다', '나는 재산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에 대비하여 재정 투자 및 관리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물질적 부를 성취한 대기업 CEO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2] 물질적 부(5점 척도)

#### ■ 명예

- '명예'에 대한 목표의식은 2014년 조사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2020년 조사의 전체 평균값은 3.57점임.
-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취업자 및 구직자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던 '물질적 부'와는 달리 대학원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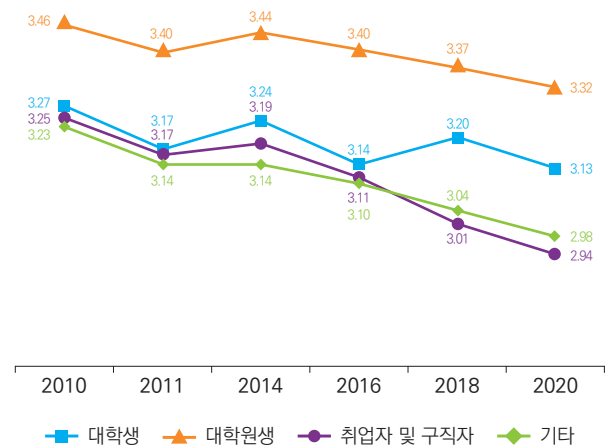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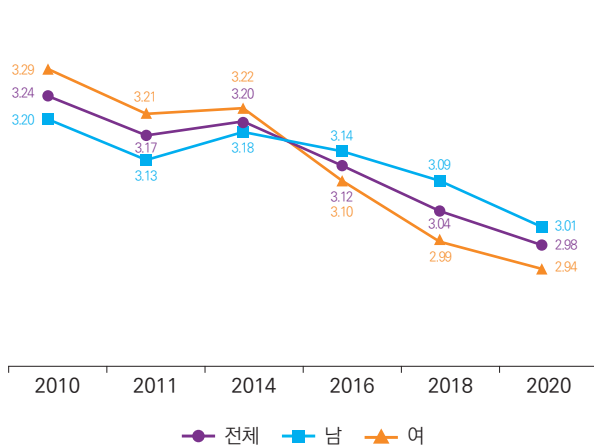


명예는 '나는 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3] 명예(5점 척도)

#### ■ 사회적 공헌

-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균 점수는 2010년 첫 조사에서는 '물질적 부'에 비해 다소 높은 3.24점이었으나 이후 조사에서 '물질적 부'의 평균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사회적 공헌'의 평균은 매우 일관되게 감소하여 2020년 조사에서는 3점 미만 (2.98점)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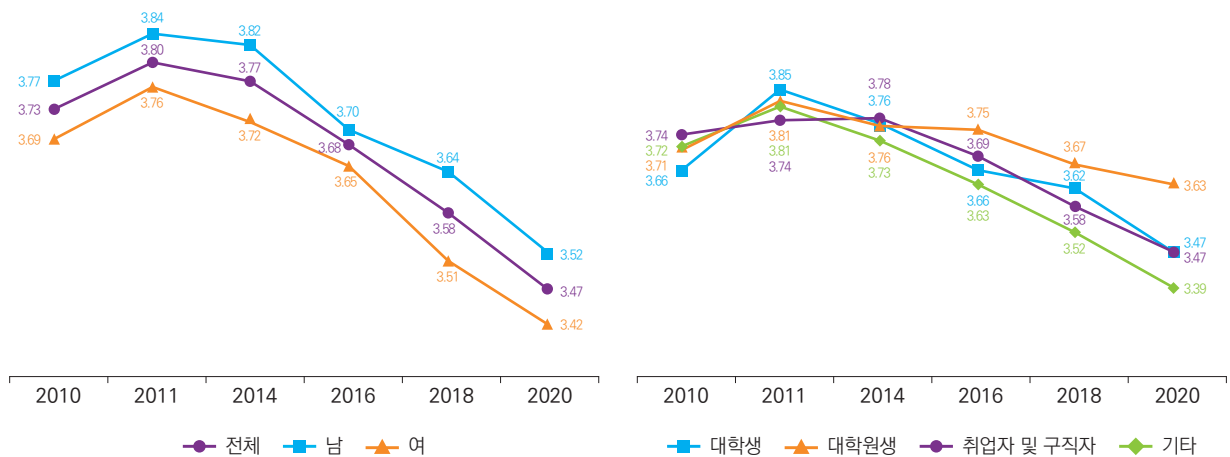
사회적 공헌은 '내가 사회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은 중요하다',  
 '나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의 사회적 기여 정도를 생각한다',  
 '나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4] 사회적 공헌(5점 척도)

- 이는 생애목표의식 6개 하위 영역 가운데 눈에 띄게 낮은 평균 점수라고 할 수 있으며, 조사 유형별로 보았을 때 대학원생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

#### ■ 인간관계

- 인간관계에 대한 목표 지향성 역시 2011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0년 조사에서 전체 평균은 3.47점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으며 대학원생 패널의 평균이 2016년 조사부터 가장 높았고, 2014년 이후 기타 유형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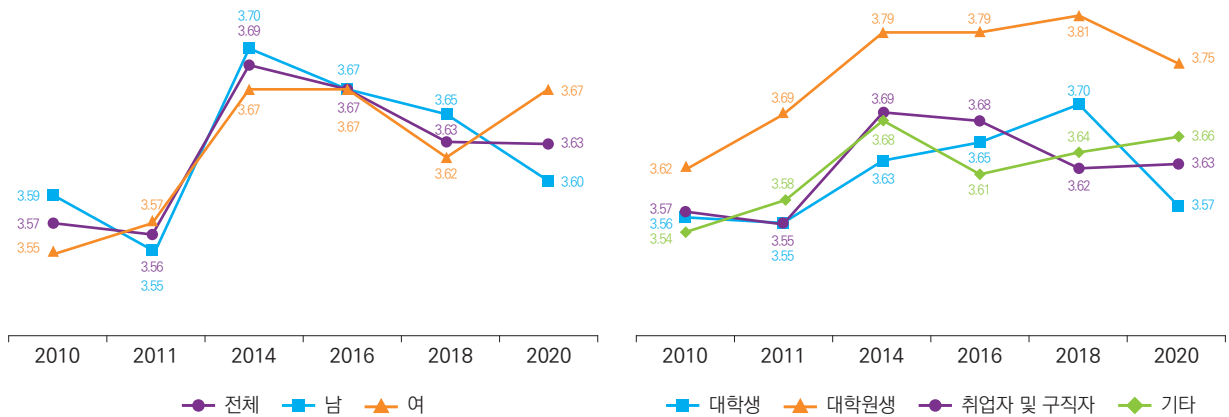


인간관계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  
 ‘나는 내 지인들의 관계 유지를 위해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5] 인간관계(5점 척도)

#### ■ 가정화목

- 가정화목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다른 항목과는 달리 명확한 상·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조사였던 2011년 조사에서는 첫 조사에 비해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 조사인 2014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함. 이후 조사에서는 다시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3.63점을 유지함.
- 성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지속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이지 않았는데, 2018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평균이 다소 높았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음. 조사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대학원생의 평균이 나머지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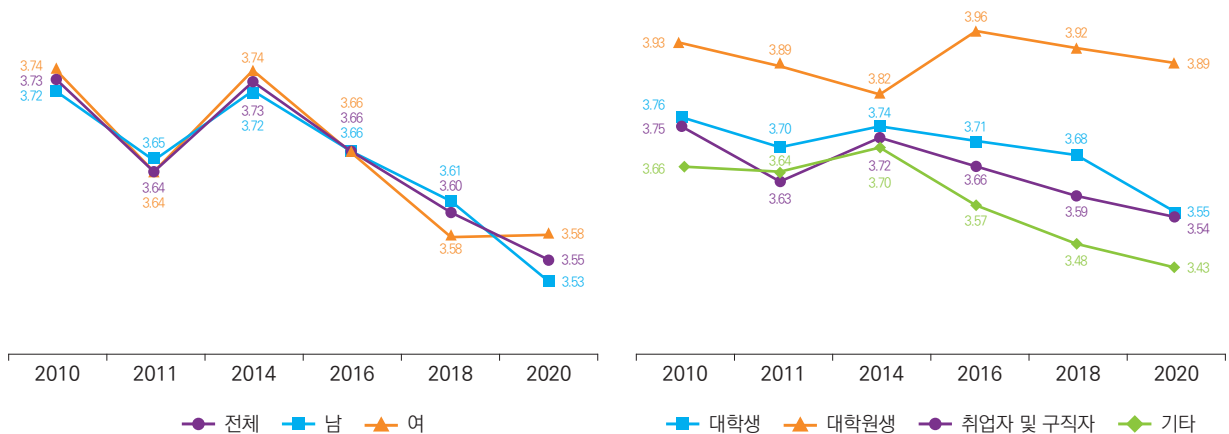


가정화목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가치있다',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는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 '나는 가족들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6] 가정화목(5점 척도)

#### ■ 자기성장

- '자기성장'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2014년도 조사에서 한 번의 반등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명예'나 '사회적 공헌'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음. 2020년 조사에서는 역대 최저치인 평균 3.55점을 기록함.
- 다른 생애목표의식과는 달리 남녀 간 평균 격차가 거의 없었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성보다 높았음. 조사 유형에서는 대학원생 패널의 평균이 꾸준히 최고치를 기록함.



자기성장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없는 직업은 매력적이지 않다',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 '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간이나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 '나는 삶 속에서 자기성장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됨.

[그림 7] 자기성장(5점 척도)

### 3. 정책 제언

#### ■ 생애목표 관련 사회 초년생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다른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큰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들은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구직에 성공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패하여 구직활동을 반복하는 시기에 속해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물질적 부에 대한 욕구는 강해진 반면, 인간관계나 명예,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 생존을 위한 구직활동이나 직장에만 얽매인 채 지금까지 자신의 정서적인 울타리였던 가정에서의 활동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지만, 높아진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요원한 상황임.
- 이러한 시기에 인생 목표를 다시 설정하거나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청년들의 자신감 하락이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

-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애목표의식 가운데 사회적 공헌은 2010년 첫 조사에서 물질적 부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3.24점) 이후 조사에서 물질적 부의 평균은 꾸준히 상승함. 반면에 사회적 공헌의 평균은 매우 일관되게 감소하여 2020년 조사에서는 3점 미만(2.98점)으로 하락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목표 지향성 역시 2011년(3.80점)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조사에서는 3.47점으로 나타남.
- 2020년부터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까지 면대면 모임을 전제로 진행되던 여러 활동을 제한하여 청년들의 대외활동과 야외활동은 그들의 생애주기 중 그 어떤 시기보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 그 결과 청년들은 문제해결을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으며, 사람과 현장을 통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관성화될 수 있으며, 21세기 들어 뚜렷하게 악화되는 공동체 문화를 더욱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함.